

신체에 표현된 기하학적 형태에 관한 연구

-바디아트 중심으로-

임 미 연
대원과학대 겸임교수

Study on Geometric Figures on Body -Body Art-

Mi -Yun Lim
Dept. of Make-Up Coodi, Daewon Science College
(2003. 8. 23. 접수)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descriptions about dots, lines, and sides which are used as a basic elements to express geometric figures as followings:

-In the aspect of formative art, dots form images and feelings through their concurrence when make a slight move to coordinates. The concurrence can bring out either positive or negative images;

-Lines have unlimited variation as a core measure in body art. They can make optimal effects with different lines such as straight and curved lines of human body;

-Sides express not only effects of texture and perspective but also of space and solid by color effects.

Expressive characteristics and geometric shapes can be classified by tattoo, henna and body painting:

First, colorful tattoos are favored by Caucasian and original tattoos are mostly used by yellow and colored races in the way of scarification to get decorative effects. Recently, a rapid cycle of fashion change in tattoo figures has developed a tentative method of tattooing and a variety of decoration methods. It has made it a lot easier to change a pattern of a tattoo. Tattoos are now popular among people because they no longer have to suffer from pains when they get their body tattooed for a long time. Since tattoos boast their unique beauty which consists of most dynamic and attractive images among the types of body art. It will be one of the most favored make-up methods in the nearest future.

Second, geometric designs used in henna include crosses, dots, straight lines, triangles, date palms, and so on. Henna has been particularly loved as an instant decoration by the public since it gradually disappears as time goes on.

Third, body painting enables to draw a three-dimensional effect because of its close relation with body movements in a limited space. Each individual will have a different feeling appealed in their body painting. Body painting has been applied to many different areas, especially to theatrical art using

lights, music and performance altogether producing impromptu and experimental works.

Unlike other arts such as painting, sculpture, visual and industrial arts, body painting has mobility. Since it is painted on a three-dimensional human body, it can bear originality expressing realistic objects or animals and strengthen creative functions using body lines. Moreover, geometric designs can be diversified by the sexes.

As a result of analysis, geometric designs expressed in body art seemed to transcend expressions of beauty and turned out to be another way of decoration. Body art has also been used as a way to express visual integration and consolidation dynamically not by human instinct but by social changes. The needs for body art will grow as the future comes nearer and be recognized as a new and fresh value.

Formative elements of geometric figures deliver visual impressions combined with human body and finally create more various types of body art in harmony of body lines.

Key Words: Body art(바디아트), dots, lines, and sides(점, 선, 면), Tattoo(문신), Henna(헤나), body painting(바디 페인팅)

I. 서론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현대 사람들은 신체 디자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신체 디자인의 범위가 확장되어 감으로써 바디아트에서 인간 신체에 대한 기본 관념을 재인식하고 재해석한 새로운 신체 미의식이 형성되었다.

신체를 디자인하는 바디아트는 해체주의나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미술사조의 영향을 받아 기하학적인 예술형태로 표현되어졌고, 이러한 경향은 혼돈과 무질서의 세기말적인 사회현상으로 바디아트의 고정된 관념을 분해하고 다양한 사고의 틀을 형성하는 예술의 한 형태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바디아트는 상흔, 문신 채색, 제거, 변형 등을 통한 일시적 혹은 영구적 신체장식 방법으로 인간의 신체에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의식화된 행위이자 표현의 양식이요 예술과 인간의 조화된 독창적 예술이라 할 수 있다.

바디아트에서 표현하는 기하학적 형태는 일체의 장식성을 제거하고 가장 단순한 기하학적 요소로 환원시킨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단순 명쾌한 느낌을 주며 그 간결함 속에서 우리는 함축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기하학적 형

태는 아름다움의 표현을 초월하여 장식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기 위해 시각적인 일체감과 통일감의 동적인 표현방법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다양하고 자유로운 바디아트의 양식 속에서 기하학의 조형성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대상의 단순 분석에서 시작한 기하학의 조형성은 실제 사물을 똑같이 그려내던 정형성에서 벗어나 점·선·면이라는 새로운 조형 요소를 낳게 된다.

1920년대에 바우하우스의 주임 교수이며 화가인 뵘클레(Paul Klee)는 생성의 인자인 점으로 시작하는 형태 생성의 도형적 차원에 관한 이론을 개발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개념적으로 점·선·면의 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점(인자로 서)이 이동하면 선이 생성된다. 1차원 만약 선이 평면적으로 움직인다면 우리는 2차원을 얻을 수 있다. 평면이 공간으로 움직이면 평면들이 맞닿음으로써 3차원의 입체가 생성된다. 즉 점은 0차원이며, 그것의 특징은 위치와 장소만을 정의하는 것이다.

선은 공간에서 움직이는 점이라 할 수 있고 길이의 1차원만을 갖는다. 면의 특성은 깊이는 없고 길이와 넓이를 가지며 선에 의해 경계 지워진 평평한 평면이다.

이렇게 점·선·면이 모여 어떤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 내는 것은 모든 조형의 기본이 되며 물리적 해석으로 정의된 개념들은 바디아트에서 활용된다.

바디아트에 표현된 기하학적 형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하학적 형태를 구성하는 조형요소의 본질과 내재적 가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조형요소를 점·선·면의 경우로 나누어 형태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 봄으로써 한 걸음 더 기하학적 추상으로서의 접근을 시도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하학적 형태가 지니는 명료함과 추상성을 바디아트에 연결지어 신체의 유기적인 외양표현에 관해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적 연구와 인터넷, 잡지 등에 실린 자료를 근거로 바디아트의 문신, 헤나, 바디페인팅을 중심으로 나타난 기하학적 조형요소 중 점·선·면을 응용하여 바디아트로 표현한 작품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바디아트에서의 조형적 표현에 대한 고찰

1) 바디 아트의 개념과 발전

인류발생 초기부터 인간은 태어나면서 물려받은 신체를 아름답게 가꾸고, 변화를 주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관습을 따르고 그것에 관련한 기술들을 이용하여 왔다. 그 관습은 아주 오래 전부터 현재 행하여지고 있는 방법까지 아주 다양한데, 피부 속으로 침투하는 방법과 침투하지 않는 방법 또는 일시적인 장식과 영구적인 장식으로 나눌 수 있다.

피부 속으로 침투하지 않는 방법은 피부 표면에서 행해지는 모든 형태의 신체장식 행위를 일컫는 것으로 신체 일부분이라도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거나 변형이 일어나는 것을 제외한 방법이다. 피부 화장이나 바디 페인팅, 헤나 염색, 장신구 달기, 머리 염색, 손톱 기르기에 매니큐어 칠하기 등의 장식정도를 말한다.

피부 속으로 침투하는 방법은 색소를 이용한 문신 외에도 신체 일부를 눌러거나 뚫으며 자르고 절단시키는 행위에서부터 골격 구조의 변화 등을 통한 장식 방법 모두를 포함한다.

인간의 신체장식의 요건은 본능적 이었으며 장식을 통한 자신들의 미의식 발산은 미적 욕구와 사회적 요구, 정신적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이러한 모습들은 어느 한 사회에 국한되지 않고 존재하지만, 아직도 일부 원시인들은 고대 조상때 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신체예술 관습을 지키며 현재까지 되살리고 있어 그 모습을 여전히 볼 수 있는 곳도 있다.

과거의 원시인들은 신체 장식의 방법을 통하여 자신들의 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심리적, 신체적 보호의 수단과 주술적인 목적으로 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신체 장식 방법을 단지 고대 원시인들이 표현하고자 했던 목적에서만 아니라 주술적인 의미는 배제되었지만 자신의 심리적, 신체적 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적극적인 자아표현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¹⁾.

현대 바디아트는 얼굴과 몸에 채색을 하는 Face 및 Body Painting, 물감을 새겨 넣어 장식하는 문신, 구멍을 뚫어 장식하는 피어싱, 피부 표면을 염색하는 헤나로 범주화되며, 신체에 장식된 Body Art는 때때로 조명과 음악과 의상 또는 소도구와의 조화로 함께 주제에 맞는 표현을 위한 퍼포먼스를 포함하는 예술관념적인 차원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것은 시각예술에 있어서 하나의 새로운 양식에 흐름을 형성하면서 예술과 삶의 조화를 이뤄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여러 가지 장식방법과 도구를 이용하여 장식하는 예술을 바디아트라 할 수 있는데 이것

1) 문정은 (2002). 바디아트의 표현적 특성과 형태 연구 - 지역 특성과 시대 변화를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p.24.

을 개념화해 보면 바디아트는 상흔, 문신, 채색, 제거, 번영 등을 통한 일시적 혹은 영구적 신체 장식 방법으로 인간의 신체에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의식된 행위이자 표현의 양식이고 예술과 인간을 조화시킴으로서 새롭게 창조되는 독창적 예술이라 정의할 수 있다.

또한 바디아트가 더 이상 소외된 집단이나 특정한 일부만의 독특한 가치관이 반영된 일탈된 주변문화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사회·문화·예술·미학적으로 광범위한 영역을 확보하고 전 세계적으로 그 세력을 확장시켜가고 있다. 그리고 애호가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예술의 한 형태로 성장하고 있으며, 기술적인 향상과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에 의해 더욱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바디아트 전반에 기하학적 개념이 영향을 주었으며, 이 흐름은 단순히 한 시대를 풍미하고 지나가는 형상이 아니며 현 시점에서 새로운 존재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현대의 시대적 상황과 제휴하여 무궁무진하게 다양한 조형성의 가능성을 보여 주면서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2) 기하학적 형태의 개념과 조형요소

(1) 기하학적 형태의 개념

인간의 조형 활동에 나타나는 형태는 기하학적 형태와 유기적 형태로 분류할 수 있는데, 현대의 표현형태에서 가장 추상적이며 구체적인 내용을 드러내 주는 기하학적 형태는 예술과 문화의 모든 영역에 걸쳐 매우 광범위하게 표현되고 있다.

기하학적 형태를 의식적으로 조형예술의 창조 활동에 이용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에 들어와서이며 이러한 기하학적 형태를 이용한 예술의 양식을 미술사에서는 기하학적 양식이라고 한다²⁾.

기하학에 대한 기원을 살펴보면 '기하학

(Geometry)'이란 geo(지구, 토지)와 metry(측량)의 합성어로 사물의 형(shape)과 크기(size)를 취급하는 과학 혹은 수학의 주요 분야로 정의한다. 미술사에서는 도형을 이용한 작업양식을 기하학적 양식이라 한다³⁾.

기하학적 형태란 복잡한 자연물로부터 간결한 형태로의 경향성으로 바뀌어낸 인공적인 추상형태이며 인간의 이지적인 사고 체계에 의해 창조된 정제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곧 자와 컴퍼스로 그려질 수 있는 사각형(square), 원(circle), 삼각형(triangle) 등의 수학적 계산이 가능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형태이다. 이러한 기하학적 형태의 간결성은 시지각적 입장에서 고찰함으로써 보다 확고한 견고성을 갖게 한다⁴⁾.

이로써 규칙적이며 단순한 느낌을 주는 기하학적 형태는 간결한 형태를 지향하는 인간의 본성이 이루어 낸 가장 정제된 형태로 전달자의 개념이 정확하게 표현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하학적 형태는 선사시대부터 상징적으로 표현수단으로 이용되기 시작하여 20세기 들어오면서 1910년의 칸딘스키의 작품으로부터 시작하여 큐비즘에 의하여 모든 대상이 입체적인 기본 형태로 환원되어 발전하여 오늘날에는 가장 단순하고 본질적인 조형요소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기하학적 형태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형 요소에는 점·선·면이 있으며 이들의 의미를 알아보기로 한다.

(2) 조형요소의 특성

① 점

점은 모든 창조의 근원이며 시작이다. 즉 점으로부터 자연이라는 형태, 미술이라는 형태가 싹트고 성장한다. 점은 수많은 형태들의 근본적인 요소이자, 인간성에 있어 다채로운 영향을 미치

2) Alois Riegi, 장광배우 역 (1970), 『미술양식론』, 동경:암기미술사, p.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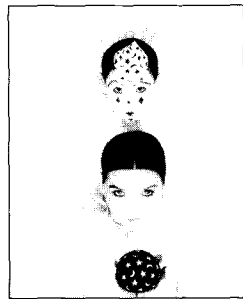
3) 남창영 (1975), 『기하학적 현상학 시론』, 서울공간, p.34.

4) 홍지희 (1999), 기하학적 단순미와 투명성을 활용한 금속공예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4.

는 살아 있는 존재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징하기도 한다. 기하학에서의 점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을 뜻하고 개념상 이것은 비물질적인 본질이며, 반면 물질적으로 본다면 제로와 같다.

즉, 점은 부재(不在)라는 부정적 요소의 상징이며, 동시에 점은 한 존재에서 다른 존재에 이르는 교량이라는 긍정적 요소로서의 역할도 한다.

점은 존재하는 것 중에서 가장 단순한 형식이며 동시에 어떠한 방향이나 형식의 조짐도 없는 대상이다. 점에는 색은 물론 명도도 없으며 유일성(唯一性), 단순성(單純性), 독립성(獨立性) 그 자체이며 일반적으로 점은 크기나 형태를 갖고 있지 않고 위치만을 표시하는 것이다⁵⁾. 그러나 구체적인 표현을 위해서는 점은 일정한 크기나 형태 그리고 색채를 지니게 된다. <그림1>



<그림 1>

기하학상의 점은 길이도 폭도 깊이도 없는 무차원의 극히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론적으로는 시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가상적 표시로서, 상하 좌우의 연결이나 지향성도 없으며 면적이나 체적도 없는 비체질적 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상징적인 면에 있어서의 점은 조형 예술면에서의 모든 요소 중에서도 가장 시조적 권위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속에서 점은 최고의 간결함, 즉 최대의 겸손한 자제성으로 말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하학적인 점은 우리의 상상 속에서 최고로 그리고 가장 개별적으로 침묵과 언어를 잇는

연결이라고 생각된다.

우리의 상상에서 점은 최고의 간결함(Knappheit)이며, 회화에서는 기초 평면 위에 파고들어 영원히 자기를 주장하는데 이와 같은 점은 내적으로 볼 때 "가장 간결하고 항구적인 주장"이며, 이것은 짧고 재빠르게 생겨난다. 인간은 점의 지식으로부터 극히 원초적이지만, 그러나 특유한 현상으로서의 '점'에 도달한다. 가시적(可視的) 세계의 직접적 수용에의 길-말하자면 시각, 사고, 감정, 행위, 지식을 혼합한 일상적 상태로부터 해방된 순수한 느낌-의 점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점은 외적인 의미에서나 내적인 의미에서 회화의 원천적(源泉的)인 요소이며, 특히 그래픽(graphic)의 원천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회화적인 작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존재하게 하는 것은 외적(外的) 형태들이 아니라, 이들 내적 형태 속에 살아 있는 힘 즉 긴장들이다⁶⁾.

W.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 1866-1944)는 회화에 있어서 점의 외적 개념은 최소의 기본형태(elementarform)라고 표시될 수 있지만, 이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점은 사라날 수 있고, 면으로 변할 수도 있으며, 눈에 띄지 않게 전체 기초평면을 덮을 수도 있다. 또한 외부의 힘을 통해 점의 집중적 긴장은 소멸(消滅)될 수 있으며, 점의 생명을 잃게 되고, 따라서 이 점으로부터 하나의 자립(自立)적인 생명을 가진 본질(本質)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선이다.

모든 시각 조형의 근본인 점·선·면은 바디아트의 조형요소에서도 가장 기본적이며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실제로 화장술의 역사를 보면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라는 입가에 점을 찍는 것으로 화장을 마감을 하였고, 16C 바로크 시대 메이크업에는 애교점이 등장하여 상당히 유행을 하였는데 주근깨와 여드름을 감추기 위해서 그리고 운명과 운세의 성좌들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애교점을 이용하였다.

5) 권상구 (1990). 「기초디자인」, 서울 : 미진사, p.48.

6) Kandinsky, 차봉희 역(2000). 「점·선·면」, 열화당, p.17.

17C에는 달, 초승달, 별, 혜성 같은 모양을 한 애교점이 인기를 끌었는데 그 위치에 따라 의미가 달랐고 눈 근처는 '염치없음', 이마 위는 '위엄 있음', 볼 위는 '친절', 아래 입술 아래는 '신중' 등의 의미로 그려졌다⁷⁾.

또한 힌두교인들은 어떤 분비물에도 더럽혀지지 않는 이마를 신체의 순수한 부분으로 여겨 붉은 점을 찍는다. 이는 축복과 장식을 겸한 표시로 시작되었으며 지금에 와서는 그런 의미는 많이 퇴색되고 있다. <그림 2>



<그림 2>

세르쥬는 그의 대표적인 메이크업 작품 '마법사들'에서 별과 달의 형태를 하고 있는 점만을 사용하여 환상적이며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아주 효과적으로 연출하고 있다. 그는 절제된 색조와 점의 사용으로 진부하거나 타성적이지 않은 창의성을 얻고 있는데, 메이크업 또는 디자인에 있어서 점이라는 기본적인 요소가 얼마나 표현적이며 또한 중요한 요소인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고 있다.

유클리드의 기하학에 따르면 "점은 무한히 미세하며, 치수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 디자인이나 메이크업에서 그려지는 점은 보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더라도 형태와 명암과 크기 등을 가져야만 한다.

점의 표현과 시각적인 인식은 절대적이지 않다. 약간의 좌표의 이동만으로도 점의 집합은 이미지와 느낌이 달라지며 이것은 부정적 이미지

또는 긍정적 이미지로 그 성격을 계획할 수도 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점의 조형적 질서를 다양하게 디자인하는 것은 바디아트의 기초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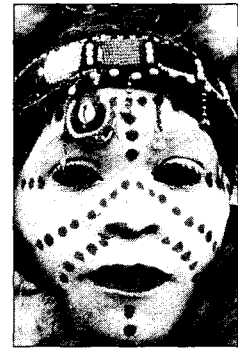
예를 들어 작은 면적으로 둘러싸일 때 점은 매우 크게 보이며 똑같은 크기의 점이 넓은 면적으로 둘러싸일 때 그것은 상대적으로 작게 보인다. 또한 점의 크기는 화면의 크기나 관찰자와의 거리와 관계가 있다. 위치나 장소를 표시하는 점은 동글지 않은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⁸⁾.

점의 크기가 다른 형태들이 모여서 특정 대상, 즉 동물의 몸을 신체위에 그대로 옮겨 표현한 작품이다. 그 점의 형태는 크기가 비슷한 간격으로 위치를 가지므로 선의 느낌과 반원의 형태를 만들어서 여성적인 느낌이 난다. <그림 3>

얼굴에 붉은 색의 선을 이용해서 곡선과 직선을 만들어 화려하게 치장한 모습이다. <그림 4>



<그림 3>



<그림 4>

② 선

선은 정적인 것에서 동적인 것으로의 비약으로 움직임을 갖게 되며, 따라서 방향이 생긴다. 선은 엄격하게 말하자면 제2차적 요소라 할 수 있다. 또한 길이를 가진 선은 가로, 세로, 깊이도 없는 무차원의 존재이던 점에 대하여 1차원적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 선도 점과 같이 시각적으로는 3차원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나 기하학적

7) 이영애 외4인 (2000). 「뷰티디자인과 색채학」, 청구문화사, p.11.

8) 김현아 (2001). 회화에 있어서 점·선·면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7.

인 존재로 가정한다면 추상적인 추정 외에는 할 수 없다.

선은 굵기와 방향, 휘어진 각도, 그려진 도구 등에 따라서 각기 다른 표정을 지닌다.

선의 잠재력은 인간이 자연에 대한 관찰의 결과이다. 심리적으로 우리들이 표현하는 선은 점보다 훨씬 강한 효과를 내는데 일반적으로 직선과 곡선, 절선을 3대 기본선이라 한다. 선의 굵기, 간격, 방향성에 의한 운동감 등에 의해 선의 표정 곧 선의 표현적 성격이 결정되는 것을 보여주며 운동의 효과는 형의 연속에 의해서 얻어지는데 이 형의 연속 형태는 가늘고 날카롭다. 때로는 선적(線的)이질이지 않고 모두가 집합적으로 한 개의 방향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직선은 경직성, 강함, 명확성, 단순성, 긴장감, 직접적 표현 등과 같이 남성적인 명쾌성을 지니고 있다. 남성적이라는 근거는 남성의 신체상의 시각적 특징이 우리들의 시각경험에 누적되어 개념화된 것이다. 여성의 신체구조는 남성에게서 볼 수 없는 불룩한 부드러움이 신체표면을 곡선적으로 보이게 하나, 남성의 신체구조는 여성과 같은 부드러움이 없고 그저 골격에 긴장된 근육만이 부착되어 남성으로서의 필요한 운동,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신체의 중요한 기점에서 기점의 간격이 직선적인 장력의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직선은 남성적, 절선은 중성적, 곡선은 여성적인 연상을 일으킨다.

하얀 얼굴귀에 Red와 Black 윤곽선은 영웅주의를 나타내어 부드러움과 정직을 나타낸다. 지도자와 영웅들은 종종 그들의 손과 발에 색 있는 줄무늬를 그렸다. <그림5>

선이 바디아트에 배치됨으로 인하여 선이 가지는 다양성과 추상적 정신성이 조형적으로 구축되면서 선은 무한한 다양성을 가지게 되며 또한 묘한 암시성을 가지고 있는 예술가에게 있어서 아주 유용한 최상의 표현적 수단이며 바디아트에 있어 선이 중요한 수단으로 치중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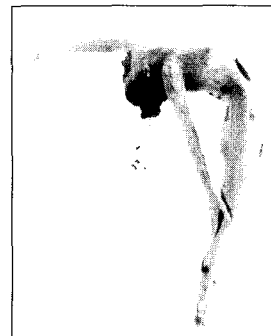
무한의 운동감을 지닌 가장 간결한 형태가 표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키가 크고 곧은 나무는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는 수직선이다. 이와 같이 수직선은 고결, 상승, 형식적인 것을 연상시키며 도전과 중력을 상징한다. 반면에 수평선은 평온하고 안정되고 조용한 느낌을 주며 접근하기 쉽고 형식을 차리지 않는 것을 나타낸다.

큰 가지들의 휘어진 모양에서 볼 수 있는 사선은 심리적 긴장감-중력 때문에 가지들이 부러지지 않을까 하는-을 생성하기 때문에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선보다 동적으로 보이며 울동적이고 힘찬 느낌을 준다. 또한 어떤 깊이로 이동하고 있다는 환각을 창조함으로써 보다 활동적으로 보인다.

사람의 신체를 캔버스 삼아 선을 이용해서 페인팅한 것으로 사람의 몸이 마치 아름다운 한 그루의 나무처럼 투명하게 그려진 바디페인팅 작품이다. <그림6>



<그림 5>



<그림 6>

무수한 선들에 의해 브러시의 흔적이 만들어지고, 그 흔적들은 스프레이 건으로 구현된 소규모의 점 구성들이 보여주는 효과를 만든다. 색채의 변화 외에 눈에 띄는 것은 신체가 공간과 만나는 방법이 변화하였다는 것이다. 신체와 공간이 만들어내는 미묘한 긴장감, 사적인 공간과 대립되는 공적인 공간에서의 작업을 의미한다. 공간과 시간 그리고 신체의 움직임이 이루는 관계가 작

9) 데이비드 A, 라우어. 이대일 역 (1987). 「조형의원리」. 미진사, p.42.

업의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그림 7>



<그림 7>

③ 면

면(面, plan)은 점이나 선에 비해 기하학적으로나 회화적으로나 간에 시각적으로 지각되는 영역이다¹⁰⁾.

면은 작품의 내용을 수용하는 물질적인 평면을 뜻하며 점의 확대 선의 이동이나 폭의 확대 등에 의해서 성립되므로 1차원인 선과 달리 넓이를 갖게 되는 2차원의 세계이다.

면은 선과 점에서 느낄 수 없던 원근감과 질감을 포함할 수 있으며, 색채효과에 의한 공간감이나 입체감도 나타낼 수 있다.

면은 주로 선에 의해 주위의 공간에서 독립된 존재로 구획된다. 때문에 선의 성격에 의해 면의 성격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

면은 형을 만드는 형상요소들 가운데, 눈에 보이는 기본현상의 하나이다. 그것이 점이나 선만큼 기본적으로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다만 겉모습뿐이다. 물론 면은 점과 선의 단순함에는 미치지 못한다. 선이 면을 윤곽 지우는 것은 선의 꺾임과 구부러짐의 가능성에 직접 기인하고 있다. 이 때는 면을 이루는 경계선에 기점도 종점도 있을 수 없으며 형식은 이미 폐쇄되어 있다.

완만한 곡선에 의해 한정된 면은 자유롭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지만, 곡선의 형태에 의해 각기 다른 느낌을 창출한다. 이렇듯 갖가지 형에 형성되고 있는 윤곽선이 지닌 특성에 따라 그 느낌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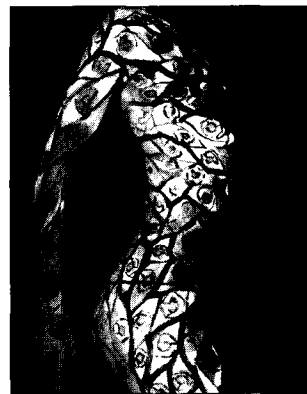
현저하게 다르다.

하나의 선을 옆으로 밀면 면을 만들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면이 선으로부터 나왔다고 말할 수 없다. 면은 그 본질로부터 독립하여 면 이상 또 다른 모습으로 환원될 수 없다.

선이 모여 면을 이루며 면에서는 양감을 느낄 수 없다. 면의 기본은 원·삼각형·사각형 등이며, 이러한 면이 모여 입체형을 이룬다¹¹⁾.

순수한 기하학적인 면도 아름답다는 것을 몬드리안은 보여 주었는데 일반적으로 면은 형태와 색채를 지니며 조형적, 미학적 성격을 갖게 된다. 어떠한 테마를 가지고 모델의 몸에 아쿠아 물감을 칠하고 그라데이션을 하는 바디 페인팅은 면의 특성이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좋은 예이다. 이렇게 점·선·면은 눈에 시각적으로 인식하고 이해할 때 해석되는 것이며, 서로 근접해 있을 때와 유사한 것들끼리 있을 때, 크기와 변화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사람의 신체를 캔버스 삼아 면을 분할하여 미를 순수하게 표현한 작품이다. <그림 8>



<그림 8>

면은 다양한 형태와 공간으로 발전하여 확대된 점과 선으로서 강한 표현력을 지니게 되는데 자연의 색채 또는 순수한 색채와의 결합은 이러한 표현력을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것으로 나

10) 안영길 외 (1991). 「예술철학」. 문학과 지성사, p.21.

11) 김기택 (2000). 점, 선, 면을 통한 추상회화의 지도방안 연구. 충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3.

타나게 된다.

아프리카에서는 바디페인팅의 개념이 신분이나 계급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사용되어 왔으며, 다양한 색감이나 자연에서 추출한 색감을 원색으로 하여 표현한 그들만의 방식을 이해하고 접근하고자 하였다. 또한 원주민들은 자신의 보호수단으로 그리고 자신의 강인함을 나타내고자 하는 주술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몸에 타투나 그림을 그려 자신을 알리고자 하였으며 크기가 다른 면들의 분할로 강렬한 이미지를 나타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림9>



<그림 9>

이러한 점(占), 선(線), 면(面)의 관계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서로 밀접하며 이들 사이에 경계를 두는 것은 불가능하다. 점(占), 선(線), 면(面)은 눈에 보이는 것을 시각적으로 인식하고 이해할 때 해석되며 그들이 바로 공간 시각 조형의 기본인 형태의 요소가 되는 것이다.

(3) 기하학적 형태와 신체와의 관계

기하학적 형태는 인간의 이지적 사고 체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장 단순화되고 정제된 형태로서 시각적으로 명료하고 강렬한 이미지를 전달하는 동시에 경직되고 딱딱한 이미지를 전달한다.

기하학적 형태는 인류의 생성과 더불어 끊임없이 연구되어 온 예술로 바디아트의 소재중의 하나이다. 또한 오랜 시간동안 우리의 의식 속에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예술의 근원을 자연에서 찾았으나 사회가 발달되어 감에 따라 우리의 생활공간이 시각의 초점이 되면서 복잡한 자연으로부터 간결한 형태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인공적 추상형태인 기하학적 형태가 많은 바디아트의 모티브가 되어 가고 있다. 기하학적 형태가 많은 바디아티스트들에게 예술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신선하고 강렬한 미와 시대감각 그리고 조형감각을 표현하기에 적합하며, 또한 예술을 위한 창조적인 활동과 더불어 자아의식을 표출하기에 적합한 소재이기도 하다¹²⁾.

신체는 무한한 생명력과 양감으로 인해 바디아티스트들에게 조형대상의 소재로 자유롭게 표현되어져 오고 있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바디아티스트들에 의하여 표현의 대상이 되어 왔다. 신체의 형상은 변화무쌍한 움직임과 제스처 등을 지남에 따라 유기적 형태의 대표적인 소재가 된다. 또한 인간 자신에게 가장 친근한 조형적 소재라는 이유에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장식 미술사에서 끊임없이 모티브와 장식으로 활용되었고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다. 신체의 부드러운 곡선은 시작한 곳도 끝나는 곳도 없이 언제나 동적으로 움직인다. 이에 반해 기하학적 형태는 인간의 이지적 사고체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장 단순하고 정제된 형태로서 시각적으로 명쾌하고 강렬하게 전달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굳건하며, 엄정한 것을 암시해 주며 정적이고 단순한 성격을 보이며 날카로움이나 차가움 등의 개념으로 설명되어진다. 이러한 서로 상반된 의미를 지닌 두 형태의 만남은 매우 극단적이면서도 서로 상호보완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기하학적 형태인 조형요소와 신체가 결합함으로써 더욱 강조되어 시각적 인상을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지닌다. 이처럼 신체의 유기적인 곡선과 기하학적 형태의 조화로 색다른 신체를 하나의 캠퍼스로 간주하여 그 위에 기하학적 형태를 적용함으

12) 정혜선 (2002). 기하학적 형태의 구성을 통한 장신구표현.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7.

로써 새로운 형태의 바디아트 작품이 창출해진다.

일반회화, 조각, 공예, 시각디자인과 달리 바디 아트는 운동성이 있으며, 삼차원의 신체에 표현을 하는 것이므로 기하학적 형태를 이용하여 독창성을 부각시킬 수 있으며 남·녀 성에 따른 차별화된 의미를 창출할 수 있다.

그들 자신의 신체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안해 낸 독특한 형태 즉 기하학적 형태들은 신체의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였고, 이들 형태들은 신체를 생동감 있는 예술품으로 바꾸어 많은 조형 예술에 영향을 주었고 기하학적 형태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4) 바디아트의 표현적 특성과 기하학적 형태의 양상

① 문신

신체에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의 한계는 거의 무제한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문신을 통해 자신의 신념을 표시하기도 하고, 자신이 속한 집단을 나타내기도 하며 자신을 보호해 줄 대상으로서 문신을 새기기도 한다. 때로는 자신의 성적 매력을 문신을 통해 맘껏 발산시키기도 하고 신체의 아름다움을 문신을 통해 나타내기도 한다. 몸에 새겨지는 문신의 의미에 대해 파악하는 작업은 한층 더 다양한 문양을 선택하고 그리는데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본다¹³⁾.

문신이란 피부에 상처를 내고 물감이나 먹물을 사용하여 글씨나 그림, 무늬 등을 새겨 넣는 것을 말한다.

몸을 치장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문신은 먹을 사용한다고 하여 입묵(入墨)이라 불려졌고 글자나 문양을 새겨 넣는다고 하여 자자(刺字) 혹은 자문(刺文)이라고도 하며, 때로는 반흔 형성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인다.

문신은 피부색에 따라 두 가지 양식으로 나타나는데 것이 보통이다.

피부색이 옅은 종족에서는 색소를 사용하는 고유 문신이 행해지고 피부색이 아주 짙은 종족에

서는 상흔(傷痕) 또는 난자(亂刺)의 방법이 이용되었다.

피부색이 짙은 종족에게 문신의 대응물로 쓰이는 상흔은 면도칼이나 송곳 등 예리한 도구를 이용하여 피부에 원하는 모양의 상처를 낸 뒤 그 상처가 아물면서 생기는 흔적을 이용하여 장식하는 방법이다. Yoruba 부족인들 사이에 'Fin-fin Cuts'로 알려진 것이 있는데 이는 여성의 몸 거의 전체에다 기하학적 무늬를 형성하는 많은 상흔을 만들 것을 이른다. 이 상흔들은 한꺼번에 만들지 않고 일부분씩 차례차례 단계별로 만들며 상흔의 문양이 보다 뚜렷하게 드러나도록 상흔을 목탄과 인디고 염료로 문지른다.

피부를 베어 낸 뒤 상처가 아물 때까지 그대로 두면 우묵한 곡선의 흉터가 생기는데 이를 '반흔 문신'이라고 한다. 신체에 기하학적인 곡선을 이용한 문신은 부드러우며, 동적임과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10>



<그림 10>

피부 깊숙이 상처를 낸 뒤 상처의 부위를 솟이나 재, 모래 등으로 문질러 흉터가 부풀어 오르게 하여 만들었으며, 상처의 모양이 점의 형태로 보여짐으로서 점의 간격으로 연속되어져 선으로 느껴진다. 이러한 방법은 켈로이드 증상의 상흔으로 반흔 문신에 비해 보다 널리 알려져 있는 방법이다. <그림11>

문신은 대체적으로 습관적 행위, 장식, 색정적 표현, 성인이 되는 의식, 용기 시험, 결혼의 표시, 전시효과, 예술적 가치, 종교적 상징물, 계급, 신

13) 김임정 (2001). 문신에 나타난 상징성과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바디 아트를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8.



〈그림 11〉

분 및 지위의 표시, 특정 종족이나 집단 구성원의 상징적 표시 등의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문신은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서 완성되었으며, 수년이 걸리기도 하였다. 남성들은 얼굴 전체에 문신을 하였으며, 많은 경우에 무릎에서 허리까지도 하였다¹⁴⁾.

마오리족은 굉장히 복잡한 남성의 문신으로 유명한데, 이 문신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며, 나선형 및 곡선 소용돌이 기하모양이 많이 발견되는데 얼굴에 행해진 문신은 코의 양쪽에 배치된 나선형의 커다란 주된 선과 작은 선, 그리고 미간에서부터 이마 쪽으로 퍼져 나가는 곡선과 코에서부터 턱 쪽으로 퍼져 나가는 곡선으로 구성된다¹⁵⁾.

이는 높은 지위에 있는 인물은 원래 얼굴 전체를 곡선이나 직선, 당초문이나 와상선으로 빈틈없이 장식했다¹⁶⁾. 소용돌이는 에너지의 흐름을 나타내기 때문에 소용돌이는 불사의 중심이 된다고



〈그림 12〉

하였으며,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이를 믿고 몹 특히 얼굴에 소용돌이 문신을 새긴다.〈그림12〉

문신의 연구성에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 문신의 속성마저 바뀌게 되는데 일시적인 문신법이 개발되어져 우리의 신체를 장식하는데 부담 없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진다.

일시적인 문신법에 의해 신체에 점으로 연결하여 면으로서 완성된 느낌으로 장식한 모습이다. 매우 아름답고 럭셔리하게 표현되었으며, 특히 크리스탈 타투는 원시민족이 행하던 상흔의 느낌과 비슷하여



〈그림 13〉

입체적인 표현이 가능하고 화려한 느낌으로 신세대 여성들에게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림13〉

또한 현대에는 유행 주기의 빠른 변화로 인해 문신의 형태 또한 많이 변모하였다.

현대인들에게 스티커 문신(Tattoo Seal)이나 크리스탈 문신(Crystal Tattoo), 헤나 문신(Henna Tattoo) 등은 장식방법과 문양의 교체가 용이하다는 점과 오랜 시간에 걸쳐 고통과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으로 인해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더욱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어 일반인의 접근이 보다 더 용이해졌다¹⁷⁾.

태초 인간의 모습인 아담과 이브를 흑과 백의 타투를 이용하여 작품을 완성했다. 흑과 백의 대비를 통해 남과 여를 구분했고 여인의 어깨선과 허리선의 곡선을 강조하여 부드러움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남성의 강인함을 강조하기 위해 인체의 중심에 선을 디자인 했다.〈그림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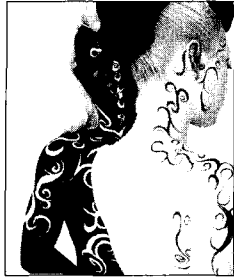
이렇게 문신이 발달함에 따라 신체 자체를 보다

14) 황춘섭, 정현주 (1975), 「마오리족-전통복식사 문신고찰」, 복식문화연구, p.47.

15) 조규화 (1988), 「복식미학」, 수학사, p.25.

16) 이승은 (2001), 현대패션에 표현된 신체장식 의 미적특성,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5.

17) 김입정 (2001), 문신에 나타난 상징성과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바디 아트를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2.



〈그림 14〉

존중하는 기하학적 형태로 변화되어 왔으며, 문신은 신체 장식의 형태 중에서 가장 동적이고 매력적이고 환상적인 방법이라는 점에서 지금까지 행해지고 있다. 문신은 아름다움과 고통 그리고 영원히 남는 불멸의 상징이고,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문화적 표식으로써 자기 개성의 표현방법으로 현재에도 바디아트의 한 부분으로서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¹⁸⁾.

② 헤나

헤나 문신의 유래는 언제 어디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오래 전부터 피부장식의 하나로 전래되어 왔다. 역사가들은 헤나가 아주 오래 전부터 화장과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다고 보고 있다.

역사적으로 오천년전 처음으로 이집트에서 헤나를 사용한 흔적이 발견되었고 인디아의 고대 무덤에서 발견된 왕족 여성의 손과 발의 장식에서도 헤나 장식이 발견되었다. 이집트에서 유래된 헤나 문신은 모로코와 같은 중동지역을 거쳐 아시아의 인도로까지 전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인도에서의 헤나 장식은 혼례식 때의 의례행위의 하나로서 신랑 신부 모두 헤나 문신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헤나란 식물의 잎을 건조한 후 그 가루로 손과 발 등에 장식을 하는 것으로서¹⁹⁾ 염색의 일종으로 라소니아 이너미스라는 식물학상의 이름을 가진 식물의 잎 속의 타닌산이라는 자연 염색 속성을

지닌 헤나가루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프리카의 대서양 연안에서부터 말레이시아까지의 많은 국가들이 헤나를 사용하면서 명칭 또한 다양한 것으로 전해지며 주로 아랍어로 '헤나' 인도어로 '헨디'라 불려진다.

어떤 연구에서는 헤나가 고대 인도에서 처음 생겨났다고 하는가 하면 인도를 정복한 몽고계 사람들이 인도로 가져 왔다고 하는 연구도 있다.

헤나는 고대 이집트에서 파라오를 미이라로 만들기 전에 파라오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염색하는데 쓰였다는 기록도 있으며, Ani라는 미이라가 된 유대의 율법학자가 헤나를 사용해 염색한 손가락을 가지고 있었고, 중세 헤나로 손장식을 한 여왕의 그림도 전해진다고 한다.〈그림15〉



〈그림 15〉

헤나의 무늬는 아주 다양하며, 건강한 육체, 풍요로움, 방어, 정신적 교화 등과 같이 각 문화의 구성원들에게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닌다.

현재 헤나는 단순한 미적 기능으로서 손, 팔, 다리, 발 등 신체 여러 곳에 장식되고 있다. 손과 발의 헤나 장식은 때로는 여성들이 남성의 시선을 끌기 위하여 몸을 꾸미거나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하여 염색을 하고, 때로는 일부에서 악마와 질병을 쫓아내는 신비스러운 것으로 사용되었다.

붉은 색에서 어두운 갈색톤으로 다소 단조로운 느낌을 주기도하나 주재료가 자연에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신체에 큰 해를 끼치지 않고

18) 김임정 (2001), 문신에 나타난 상징성과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바디 아트를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4.
19) 전규태 (1992), 「마지막 원시인」, 백문사, p.71.

고통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때문에 영구적인 신체 장식에 거부감이 있는 이들에게도 각광받고 있다.

Berber 여인들은 얼굴 뿐 아니라 손 등에도 siyala 무늬를 이용한다. 그림에서 이용된 기본적인 요소는 십자가 점, 직선, 삼각형, 대추야자 혹은 종려가지의 양식화된 표현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면 손에 복잡하고 멋지게 그려지는데 그 패턴들은 결혼 전에 적용된다. 여자들은 해나 물감을 사용하고 그것이 모든 면에서 강력한 보호를 해 준다고 믿는다. 뿐만 아니라 발자국에 남겨져 있는 영혼에 주술적 행위를 하는 데에도 전통적인 패턴을 사용함으로써 적의 힘을 방해한다고 믿어 맨 발과 발뒤꿈치에 siyala 무늬를 필요로 한다. <그림 16>



<그림 16>

해나 문신은 이용이 간편하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제거가 되는 장점으로 일반인에게 많이 사랑받고 있는데 이것은 현대인들의 일시적인 장식 방법의 선호를 잘 보여주고 있는 예이다.

최근에 이러한 고대 인도풍의 해나 문신이 일반 여성들의 뷰티 문신으로 널리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해나가 가지고 있는 색채 느낌은 단색의 갈색 톤으로 다소 단조로운 느낌을 주기도 하나 정교하고 다양한 문양은 현대의 새로운 디자인 개발을

위한 좋은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직물의 문양이나 뷰티문신, 바디페인팅의 소재로도 널리 활용할 수 있다.

③ 바디페인팅

바디페인팅은 원시시대의 주술적인 신앙으로부터 시작되어 다양한 신체예술의 형태로 이어져 현대에는 독특한 예술의 한 분야로 자리 잡아 왔다²⁰⁾.

이러한 원시 바디페인팅은 1966년부터 발전, 쇠퇴를 거듭해 오다가 비로소 문화 예술로 표현되었으며, 아트 디렉터인 리트에 의해 재시도되기 시작하여 발전되었다. 나아가 말이나 글, 음악, 행위의 표현이 이제까지 끊임없이 행해져 오고 있으며, 원시적으로 발생된 바디페인팅도 그 맥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바디페인팅은 직접적이고 신체성이라는 것에 의미를 가진다. 몸에다 물감이나 진흙을 그 외에도 신체에 표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이용하여 아름답게 환상적으로 혹은 의도된 목적에 따라 채색하는 장식 방법이다.

또한 신체의 기하학적 조형요소인 점, 선, 면을 통해서 명암, 질감, 양감 등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으며, 이러한 표현은 단조로운 화면에 생명력을 부여하여 입체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작품을 분석해 보면, 면을 이용하여 나무형상을 입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림 17>



<그림 17>

20) 강근영 외5 (2001). 「색채와 뷰티코디네이션」, 고문사, p.182.

바디페인팅은 자기의 내면이나 숨겨진 것을 좀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으며, 생명력이 느껴지는 작업을 통해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인간의 생각을 이 몸으로서 표현하는 방식인 것이다. 보는 사람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부여하며 그것은 순수성, 작가의 개별적 의도와 감상자의 권리이며, 사회성의 한계라고도 할 수 있다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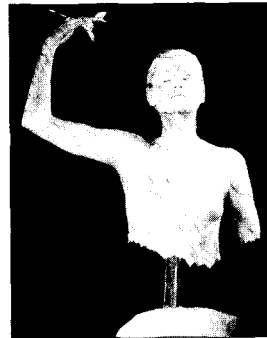
바디페인팅은 기존의 사물에 표현하는 것과 달리 공간적인 감각과 시간적인 감각에 의해 표현된다. 또한 바디페인팅은 표현의 결과를 인체의 움직임에 따라 비의도적 표현을 다양하게 할 수 있으며, 실제로는 직선으로 이루어진 평행선도 몸의 굴곡에 따라 곡선으로 보여 질수 있다. 평면은 간단한 모습부터 꽤 복잡한 모습의 다양한 형태를 얻을 수 있다.²²⁾

바디페인팅은 작가 자신의 감성이나 감각, 느낌 혹은 의도를 시각적인 언어로 표현 하였을 때 그것을 보는 관찰자의 감정이나 느낌이 작가와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다. 따라서 바디페인팅이 문자언어와는 달리 하나의 형상을 통해서도 무수히 많은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포괄적인 시각언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디페인팅에서 피부는 경이로움을 계획하려는 다양한 표현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개념이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즉흥성이다. 순간의 열광 즉, 영원한 변경을 위한 욕구로부터 나오는 것이 바디페인팅의 효과이다. 그러나 우리 내면에 있는 깊이를 측정할 수도 없는 자연 그대로의 어떤 것과 접촉하게 하며 해방되고 드러나고 싶어 하는 내면 속의 자아를 끌어다 주거나 완벽한 시각적 환상을 창조해 내는 바디페인팅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²³⁾ 그러나 주목할 일은 새로운 순수예술 장르로 태동하려는 현대 작가들의 뚜렷한 노력이 있다는 것이다. 현대의 바디페인팅 작가들은 즉흥적 창작성과 세련된 작품성과 퍼포먼스를 통한 완벽한 시각적 환상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토마스 오스왈드의 모던 바디페인팅은 초현실적인 인체의 풍경을 보여 준다. 대래석 무늬처럼 인체에 그려진 선은 따뜻한 피가 흐르고 있는 여인의 몸을 단순히 돌처럼 굳혀 놓은 이미지가 아니라 그 물결치듯 굽이치는 선의 운동감과 빚겨 잡은 장미 줄기의 선과의 조화를 통해 우리를 흐르는 시간의 강으로 초대하는 것이다. 결코 돌처럼 굳어 버릴 수 없는 생명의 아름다움이 인체 위에 선으로 표현된 돌의 이미지로 역설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인체 위에 표현된 몇 가락의 선이 매혹적인 메이크업 디자인으로 변하는 것은 선의 표현력과 상상력의 놀라운 결합의 결과이다. <그림18>



<그림 18>

눈속임을 이용하여 사람의 얼굴이 기하문양인 점의 무늬와 직물 무늬 속에 감추어져 그것의 일부분인양 그려진 바디페인팅이다. 직물의 질감이나 신체에 의하여 생기는 굴곡, 무늬 접힘등을 잘 관찰해서 디자인한 작품으로서 점의 크기를 이용하여 울동감과 방향감을 주어 주의력을 끄는 매우 강한 작품이다. <그림19>

이것은 얼굴과 몸을 선으로 된 형태로 장식하고 자신의 마음을 나타내는 그룹의 인원을 확실히 표시하는 것이나 주된 목적은 개인의 힘을 강조하고 싸움 전에 그들의 대항자에게 공표하기 위한 것이다.

21) 진현용, 최성민 (2001). 「The body art」. 도도컵, p.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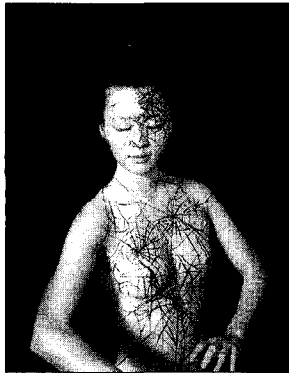
22) 김재희 (2002). 바디페인팅에 나타난 기호성과 상징성에 대한 연구. 한성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6.

23) 김영희 외7 (2001). 「토타메이크업」. 정문각, p.82.



〈그림 19〉

김은선은 라이닝 컬러를 이용하여 자신의 몸에서 실을 자아내는 거미줄의 형상화를 통하여 얼굴과 몸을 선으로 된 형태로 장식하여 면의 그라데이션 보다는 선의 굵기 즉 강약에 따라서 포인트를 주어 거미줄의 효과를 살렸다.〈그림20〉



〈그림 20〉

Ⅲ. 결론

인류의 태동과 함께 시작했던 바디아트는 고대 원시사회에서부터 문명이 극도로 발달한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본능적, 사회적 표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하학적 형태들을 신체에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되어져 왔다.

인간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여 인간의 내적 이미지의 세계를 표현하는 바디아트는 얼굴에서 신체까지 미적 표현을 넓히는 새로운 예술을 형성하기에 이르렀으며 단순하고 명쾌한 감각을 주는 기하학적 형태를 신체의 부드러운 곡선과 조화시킴으로서 디자인의 포인트가 되기도 한다.

바디아트는 인간의 신체를 재조명한 예술의 한

분야로서, 현 시대에 자리매김이 되어 왔으며 기하학적 형태를 기본으로 신체에 디자인하여 발전되어 왔음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바디아트에 나타난 기하학적 형태는 아름다움의 표현을 초월하여 장식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시각적인 일체감과 통일감의 동적인 표현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장식은 인간의 본능보다는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의해 치장되어지고 현대사회에서 미래로 나아갈수록 바디아트의 필요성이 확장되어질 것이며, 새롭고 신선한 가치로 인정받을 것으로 본다.

기하학적 형태의 조형적 요소는 신체와 결합함으로써 더욱 강조되어 시각적 인상을 전달하고, 신체의 유기적인 곡선과 기하학적 형태의 조화로 새로운 형태의 바디아트의 작품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 자신의 신체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안해 낸 독특한 형태인 기하학적 형태들은 신체의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였고, 이들 형태들은 신체를 생동감 있는 예술품으로 바꾸어 많은 조형예술에 영향을 줄 것이며, 기하학적 형태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과정에서 바디아트 작품을 통해 점, 선, 면의 조형적 기본요소의 토대 속에 상징적 이미지들을 접목시켜 표현하고자 했다.

점, 조형예술측면에서의 점은 모든 요소 중에서도 가장 시조적인 권위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약간의 좌표 이동만으로도 점의 집합은 이미지와 느낌을 갖게 되며 이것은 부정적 이미지 또는 긍정적 이미지로 그 성격을 계획 할 수 있으며, 점은 조형적 질서를 다양하게 디자인 하는 것은 바디아트의 기초가 된다.

선, 바디아트에 있어 주요수단으로 무한한 다양성을 가지며 또한 묘한 암시성을 갖는데 특히 선이 화면에 배치됨으로 인해 방향(direction), 정위(orientation), 운동감 등의 에너지를 갖는다. 또한 인체의 직선, 곡선 등 개성적인 선에 의해서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 될 수 있다.

면, 특히 점과 선을 기초로 하여 기하학적이고 추상적인 성격을 나타내는데 면은 점과 선에서

느낄 수 없던 원근감과 질감을 포함 할 수 있으며, 색채 효과에 의한 공간감이나 입체감을 나타낼 수 있다.

다음으로, 바디아트의 표현적 특성과 기하학적 형태의 양상을 살펴보면, 기하학적 형태를 사용함으로써 신체를 생동감 있는 예술품으로 바꾸어 놓았고 많은 조형예술에 영향을 주었으며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바디아트에 나타난 기하학적 조형요소인 점·선·면의 형태와 관련된 소재를 찾아 변형미와 단순화 과정을 통한 추상형의 기하학적 조형미에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이에 관한 작품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문신의 작품을 분석해 보면, 문신은 피부색에 따라 두 가지 양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피부색이 옅은 종족에서는 색소를 사용하는 고유문신이 행해지고 피부색이 아주 짙은 종족에서는 상흔 또는 난자의 방법이 이용 되어 신체에 기하학적 형태를 표현하여 장식효과를 주었다.

현대에서는 유행주기의 빠른 변화로 문신의 형태 또한 많이 변모하여 일시적인 문신법이 개발되어져 장식방법도 다양하고 문양의 교체가 용이하며 오랜 시간에 걸쳐 고통과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많이 이용되며 바디아트의 형태 중에서 가장 동적이고 매력적이며 그 독특한 아름다움으로 인해 향후 더욱 선호 되어지는 화장기법으로 널리 퍼질 것이다.

헤나는 결혼을 준비하는 신부의 장식이나, 아름다움을 꾸미거나 악마와 질병을 쫓아낼 때 손이나 발등을 장식할 때 사용되며, 헤나에 나타나는 기하학적 형태의 조형적 요소는 십자가, 점, 직선, 삼각형, 대추야자 등의 다양한 문양을 사용하고 있다. 헤나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기하학적 문양들이 없어지므로 일반인들에게 많이 사랑받고 있고, 현대인들의 일시적인 장식방법으로 선호되고 있다.

바디페인팅은 단순히 그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작품의 의도와 컨셉이 들어 있어야 하며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서는 작품이 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바디페인팅은

공간속에 인체의 움직임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3차원의 연출이 가능하며, 바디페인팅 형태에서 느끼는 감정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이렇듯 즉흥적인 작품뿐만 아니라 실험성이 강한 작품까지, 그리고 무대에서 조명, 음악, 퍼포먼스를 곁들여 표현하게 되는 무대예술로서도 자리를 굳건히 하게 되었다.

바디 페인팅은 회화, 조각, 공예, 시각디자인과 달리 운동성이 있으며, 삼차원의 인체에 표현을 하는 것이므로 실제적인 사물이나 동물을 연출하여 독창성을 부각시킬 수 있으며, 신체의 굴곡을 이용하여 창조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으며 남, 녀 성에 따른 차별화에 의해 기하학적 형태가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바디아트는 신체예술을 필요로 하며 신체를 하나의 조형물로 간주하여 조형요소의 원리를 이용하여 시술된 바디아트는 예술의 한 장르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신체위에 표현된 바디아트에 나타난 기하 형태의 다양화와 개성화를 현대감각에 맞는 새로운 기하 형태를 제시하는 노력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바디아트의 무궁무진한 표현영역의 확대가 계속해서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바디아트는 신체의 몸을 기하형태를 이용하여 이미지화 또는 형상화 시켜 재구성하는 것으로, 모델과 관중 그리고 작가가 함께 어우러진 종합예술로서의 면모를 고루 갖추면서 계속하여 발전 될 것이며, 이러한 종합예술의 계승과 발전의 의무는 현대 바디아티스트들의 몫이 되어서 다양한 노력을 더욱 확대 시켜야 한다.

끝으로 신체에 표현된 바디아트의 조형요소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현대감각에 맞는 바디아트의 표현영역의 확대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근영 외 3인 공저 (2001). 「색채와 뷰티 코디네이션」.
고문사.
권상구 (1999). 「기초 디자인」. 미진사.

- 김기택 (2000). 점·선·면을 통한 추상회화 지도방안 연구.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희 외 6인 공저 (2001). 「토탈 메이크업」. 정문각.
- 김입정 (2001). 문신에 나타난 상징성과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바디 아트를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희 (2002). 바디페인팅에 나타난 기호성과 상징성에 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아 (2001). 회화에 있어서 점·선·면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창영 (1975). 「기하학적 현상학 시론」. 서울공간.
- 데이비드A. 라우어. 이대일 역 (1987). 「조형의 원리」. 미진사.
- 문정은 (2002). 바디아트의 표현적 특성과 형태 연구 -지역 특성과 시대 변화를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영길 외 (1991). 「예술철학」. 문학과 지성사.
- 이승은 (2001). 현대패션에 표현된 신체장식의 미적특성.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애 외 3인 공저 (2000). 「뷰티디자인과 색채학」. 청구문화사.
- 전규태 (1992). 「마지막 원시인」. 백문사.
- 진현용·최성민 (2001). 「THE BODY ART」. 도도컴.
- 정혜선 (2002). 기하학적 형태의 구성을 통한 장신구 표현.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규화 (1988). 「복식미학」. 수학사.
- 황춘섭, 정현주 (1975). 「마오리족-전통복식사 문신고찰」. 복식문화연구
- 홍지희 (1999). 기하학적 단순미와 투명성을 활용한 금속공예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lois Riegi. 장광매우 역 (1970). 「미술양식론」. 동경 압기미술사.
- Kandinsky. 차봉희 역 (2000). 「점·선·면」. 열화당.